



행복한 시민, 신뢰받는 기업
글로벌 No.1 서울교통공사

「2018년도 4분기」

현장과 함께하는 소통회의 결과

2018. 11. 28.



서울교통공사
제1종합관제센터

『2018년도 4분기』

현장과 함께하는 소통회의 결과

I 소통 개요

「현장과 함께하는 소통회의」를 통해 상호 의견교환과 개선방향을 마련, 이를 토대로 소통과 화합의 상생조직문화 확립하여 공사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.

가. 일 시 : 2018.11.28.(수) 16:00~18:00

나. 장 소 : 동작승무사업소 (3층 교양실)

다. 참석자 : 총 18명

1) 제1종합관제센터 : 관제운영팀장 등 8명

2) 제2종합관제센터 : 열차관제사 1명

3) 3호선 구간 관련부서 : 9명

II 소통 내용

차량분야

토 론 안 건	토 론 내 용
<p>○ 고장차 점검관련으로 선로진입 시에 한성대 Y선의 경우 기둥과 기둥사이에 안전바가 없어 작업에 몰두하다보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음.</p> <p>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함.</p>	<p>○ 터널내 선로점검 시에 순간적인 실수로 반대편 선로 진입을 하려는 경우가 많으며, 이때 반대편 선로에 열차가 진입할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, 안전바가 설치될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음.</p> <p>○ 터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바 설치가 필요하며,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서 안전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가 필요 함.</p>

□ 기술분야

토 론 안 건	토 론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성대 Y선 특수차(철도장비) 유치선 사용관련 현황 및 문제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호선의 경우 특수차가 창동차량기지와 남태령 유치선에서 입·출고를 함으로, 중간구역(한성대입구역~삼각지) 시설물의 검사·보수·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, - 특히 동절기엔 동파방지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급수시설의 철거로 고압살수차, 대형물탱크차 등의 특수차 작업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 함. - 따라서, 한성대 Y선 특수차(철도장비) 유치선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간 논의가 필요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시에는 한성대 Y선을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나, 이례상황으로 고장차 유치 및 회차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성대 Y선에 특수차를 유치시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, 특히 최근 들어 전동차 노후화로 인한 고장 빈도가 잦아 한성대 Y선 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 함. ○ 궤도분야 어려움은 이해하나 여러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, 관련부서간 별도 협의가 필요 함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열차운행 중 터널내 냄새, 연기발생 등으로 확인차 선로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. 이런 경우 선로출입 절차가 까다로워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열차운행 중 선로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나, 필요시 상황에 따라 조치를 위해 선로출입이 가능하며, 또한 영업종료 후 단전이전 이라도 선로출입이 가능하고, 선로출입절차에 따라 해당역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 함.

□ 4호선 안전관리관

협 조 사 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속장의 관심도에 따라 현장간 상황발생 대응역량 편차가 있다. 상황발생 시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비상대응현장조치매뉴얼에 따른 개인별 임무 등 주기적인 반복훈련이 필요 함. ○ 철도안전관리체계 관련 감독관 필수점검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정교육(철도종사자안전교육, 산업안전보건교육 등)시에 관련교육내용 유무, 서명부 등을 확인하며, 특히 신규전입자에 대해 필요한 법정교육을 반드시 실시 하여야 함. - 상황보고체계도, 비상연락망 등 기준일자에 맞는 현행화 여부 확인이 필요

□ 기타사항

[장비관리단]

- 선로작업 시에 운전허가증 발급을 위한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작업시간이 촉박한 경우와 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존재하므로 관련규정 개정 등이 필요 함.

[동작서비스안전센터]

- 장애수준별 기준에 따라 Level3(중대) 해당 시 즉시 현장지휘소 가동해야 하나, 해당 역에서 제한된 인원 등으로 신속하게 설치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다.
특히 열차운행이 중지 될 경우 택시 등 타 교통편을 이용하므로 이동에 따른 제약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임.

[제2관제 열차관제사 회의참관]

- 다양한 분야(관제, 안전, 영업, 승무, 기술) 현업관리소에서 참여하여 각 분야별 의견과 그에 따른 토의를 진행하는 등, 딱딱한 회의 분위기를 탈피 편안한 분위기 속에 회의 진행이 보기 좋았음.
- 영업종료 후 특수차 이동시에 운전허가증 발급과 관련 지도권, 지도표를 부여받고 폐색구간을 통과한다는 부분과 영업열차 종료 후 특수차 통제를 시설관제에서 주관한다는 내용에 대해 1관제와 2관제의 업무방식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.
※ 2관제의 경우 중앙집중 통제방식이다 보니 운전허가증 발급 등이 불필요 함.

□ 제1종합관제센터 당부사항

- 1) 안전계획처에서 시달한 『비상대응조직 업무매뉴얼 통보』와 관련하여
 - 역사내 사고 시 역무실은 관제와 통화외 타부서 통화금지
 - 역사외 사고 시 기관사 또는 차장 1명은 관제와 통화유지(유·무선 연락 직원 대체가능) 이라고 매뉴얼 지침이 있는 만큼, 이례상황 발생 시 상황 관제와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통보하여 주기 바람.
- 2)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 규정에 의하면
 - 정거장 내 발생한 사고는 역장, 기관사 또는 차장이 즉시 급보하고
 - 정거장 외 사고는 기관사가 즉시 급보하고
 - 위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현장관할 현업기관의 장 또는 발견자가 즉시 보고하게 되어있으니, 향후 이례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협조

붙임 1. 관련사진 1부.

2. 참석자 서명부 1부. 끝.



회의시작전 간단한 다과 Time



참석자 소개



질의 & 답변



소통회의를 마치며.....

소통회의 참석자 서명부

- ◎ 일 시 : 2018. 11. 28(수) 16:00 ~
- ◎ 장 소 : 동작승무사업소(3층 교양실)
- ◎ 참 석 자

순번	소속	직급	성명	서명	비고
1	1층항안제센터	3급	신세현	신세현	
2	장미안락	5급	양승주	양승주	
3	제2층항안제센터	5급	김재익	김재익	
4	정비통신1사업소	3급	차용길	차용길	
5	상계승무사업소	3급	안영욱	안영욱	
6	동작승무사업소	3급	김재호	김재호	
7	4호선 안전관리관	3급	김치영	김치영	
8	동작서비스관리센터	3급	안분자	안분자	
9	동작신로관리소	3급	김성우	김성우	
10	황동차량	3급	원순복	원순복	
11	동작전기관리소	4급	김철누	김철누	
12	제1층항안제센터	5급	임황섭	임황섭	
13	"	3급	김종현	김종현	
14	"	3급	조종택	조종택	
15	"	3급	이성민	이성민	

순번	소속	직급	성명	서명	비고
16	제1 종합관제	4급	신상환	신상환	
17	"	4급	양인석	양인석	
18	"	6급	김지현	김지현	
19					
20					
21					
22					
23					
24					
25					
26					
27					
28					
29					
30					
31					
32					
33					
34					
35					